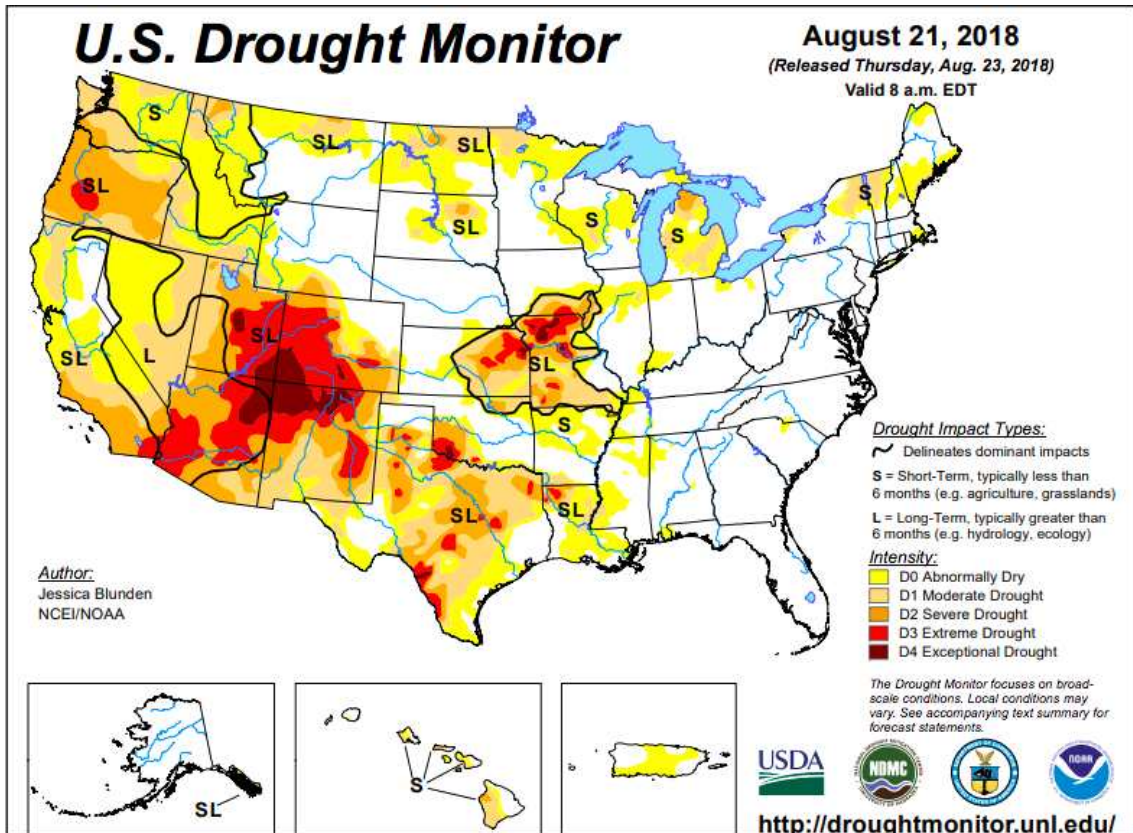


9월 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(Volume 105, No. 36)

□ 미국 기후 현황(8/26~9/1)

중서부의 북부 지역에서는 2~8인치 내외의 제법 많은 비가 내렸고,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. 한편, 남부 및 동부의 주요 옥수수 재배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~10°F 이상 높은 더운 날씨를 보였고, 옥수수와 대두 등은 수확을 앞두고 있다. 남부 지역에서는 옥수수, 벼 등의 수확작업이 시작되었다. 걸프만 연안 지역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소나기가 내렸고, 9월 3일에는 열대성 저기압인 Gordond가 형성되어 북상 중이다. 로키산맥 북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°F 이상 낮은 날씨를 보였다. 캘리포니아와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에서는 비가 한두 차례 내리면서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.



□ 농업 현황 요약(8/27~9/2)

플로리다, 아이오와, 미시간, 위스콘신 등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. 로키산맥 북부 및 Delta 인근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조금 낮은 날씨를 보였고, 그 밖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. 캘리포니아, 태평양 연안 북서부 및 로키산맥 북부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2~8°F 이상 낮았다.

□ 세계 기후 현황(8/26~9/1)

■ 유럽: 북부 유럽 일대에서는 10~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한편, 독일 중부와 폴란드 서부, 체코 등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 겨울작물 파종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.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30일 간의 누적 강우량이 평년의 25%수준에 그치고 있다. 남중부, 남동부 유럽 일대에서는 10~8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그리스에서도 면화 송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일부 지역에서 50mm가 넘는 소나기가 내려 수확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. 이베리아 반도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4°C 정도 높은 날씨를 보였다.

■ 구소련(서부): 우크라이나 북서부, 벨라루스, 러시아 북부 일대에서는 1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.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2~37°C까지 오르내리는 늦더위가 이어졌다. 흑해 일대에서는 지난 30일간의 누적 강우량이 평년의 10% 수준에 그치고 있어 용수 공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, 반대로 러시아 북부 Caucasus 일대에서는 지난 8월부터의 누적 강우량이 평년의 2배에 이르고 있다.

■ 동아시아: 중국 북동부 일대에서는 25~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양쯔강 일대에서도 25~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, Guangdong, Fujian 등에서도 100~2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한편, 중북 북부 평원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~5°C 정도 높은 날씨가 이어졌다.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지난 주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던 지역에서는 피해 복구작업이 진행되었고, 한반도 남부 일대에서는 주요 벼 재배지역 일대에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. 일본에서는 Honshu 일대에서는 25~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, 홋카이도 일대에서도 10~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

■ 호주: 퀸즐랜드, 뉴 사우스 웨일즈, 빅토리아 등에서는 25mm가 넘는 비가 내렸다. 하지만, 주요 밀 재배지 일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. 서호주에서는 10~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, 밀, 보리, 카놀라 등의 수확량 전망은 매우 밝은 상황이다. 주요 밀 재배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°C 정도 높았다.

■ 아르헨티나: 북부와 중부의 주요 농업지역에서는 낮 동안의 평균 기온은 평년에 비해 1~2°C 정도 높았지만, 주 후반으로 가면서는 밤 동안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갔다. 남부 주요 농업지역 가운데 Santa Fe, Sao Paulo 등에서도 밤동안 기온이 0°C 가까이 내려가기 시작했다. 북동부의 Santa Fe 북부, Entre Rio, Corrientes 등에서는 1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. 서부의 Cordoba 등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.



■ 브라질: Parana 및 중부지방의 주요 농업지역 일대에서는 지난 주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회복했다.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8월 27일 기준 밀의 개화율이 84%를 기록했고, 이모작 옥수수의 수확률은 87%를 기록했다. Rio Grande do Sul 일대에서는 50mm가 넘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. 이 지역에서 8월 30일 기준 밀 개화율은 25%를 기록했다. Mato Grosso의 8월 31일 기준 면화의 수확률이 90%를 기록했으며, 이는 평년에 비해 4% 포인트 앞서는 수치이다. 동부 해안 지역에서는 1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.